

## 소망소사이어티, ‘여러분 죽음 준비 되셨습니까?’ 주제 컨퍼런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Well-Being, Well-Dying)’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10월 12일(토) 은혜한인교회(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서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러분 죽음 준비 되셨습니까?’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2명의 기조연사와 8명의 워크숍 강사들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각 1개의 기조 강연과 4개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방송과 복지현장에서 치매 인식 개선 및 죽음 준비 교육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유경 사회복지사가 강사로 참석해 아름다운 죽음 준비와 관련해 강연할 예정이다.

호그비원의 통증완화 프로그램의 책임자이자 UCI 의과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빈센트 뉴엔 박사도 강사로 나선다. 뉴엔 박사는 UCI 의과대학에서 현지 의사들에게 고통 완화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조 강연이 끝나면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의 워크숍에 참가하면 된다. 워크숍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 뇌를 건강하게-치매 예방, 말콤 딕 박사(UCI MIND)
- 장례준비, 백키 로마카 부장(오코너 장의사)
- 죽음준비교육, 박혜수(소망소사이어티 샌디에고 지부 고문)
- 호스피스, 전혜정 교수(아주사 퍼시픽대) (이상 오전)
- 신신기증 마크 부룩스(UCI 신신기증프로그램)
-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나, 유경 사회복지사
- 치매 가족, 김에린 사회복지사(미 보훈국)
- 은퇴 준비 및 유산 상속, 박유진 변호사 (이상 오후)

한편 소망소사이어티는 지난 9월 20일(금) 오후 4시, UC Irvine Institute for Memory Impairments and Neurological Disorders(이하 UCI MIND)와 MOU를 맺고 치매연구 사업에 있어 두 단체 간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UCI MIND는 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 미국 30개 치매 및 뇌질환 연구기관 중 하나이며,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유일한 치매 및 뇌질환 연구센터이다.

## “목걸이 덕분에” ... 50년 전 미국 입양 자매 한국 가족 상봉

50여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자매가 한국의 가족과 상봉하는 기쁨을 누렸다. 가족을 찾는 데는 입양 당시 자매의 할머니가 걸어준 목걸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희(미국명 진희 김 사피로·57)·진숙(미국명 수키 김 웰시·54) 씨 자매는 지난 16일 인천공항에서 친아버지(88)와 오빠(60)를 48년 만에 만났다.

김 씨 자매가 가족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50여 년 만에 가족을 만난 김 씨 자매는 “더 빨리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살아생전에 생사를 알 수 있어 다행”이라고 안도하며 손을 잡았다.

특히 진희 씨는 “입양 당시 오빠가 공항에서 나를 껴안은 채 눈물을 펄펄 흘려 머리 정수리가 젖었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해 아버지와 오빠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김 씨 자매는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들 자매는 그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만 했지만 방법을 알지 못해 행동으로 나설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미국내 한인 입양인들로부터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는 방법에 대해 들었고, 2015년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 홈페이지 ‘가족찾기’ 게시판에 할머니가 입양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걸어준 목걸이 사진과 함께 사연을 올렸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최근 진희 씨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친오빠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음성메시지를 받았다.

진희 씨가 올린 게시글을 발견한 것은 조카(25)였다. 아버지로부터 ‘어릴 적 입양간 여동생들이 있고 살아생전 꼭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이들은 무작정 인터넷으로 고모의 이름을 검색하다 사연을 찾아냈다.

특히 할머니가 준 목걸이 사진이 가족을 찾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목걸이에는 고향 주소와 형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1971년 입양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진희 씨는 이 목걸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간직해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형제임을 확인하고 김 씨 자매의 가족 상봉을 주선했다. 이 기관 ‘가족찾기’ 게시판에는 현재 2천여 명의 입양인과 친가족의 프로파일들이 등록돼 있다.

## OC 한인 유권자 수, 지난 1년 1,962명 증가 ... 한국 출생자 기준

오렌지카운티(OC) 한인 유권자 수가 지난 1년 사이, 약 2,000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 선거관리 자원봉사자 모임인 코리안폴워커클럽(KPWC)이 최근 OC선거관리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 현재 OC의 한인 유권자 수는 지난해 6월 25일 기준 3만905명에서 약 6% 증가한 3만2,8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인 1세(한국 출생자) 기준이어서 2세, 3세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별 한인 유권자는 풀러턴이 5,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바인(5,375명), 부에나파코(3,054명), 애너하임(2,706명), 가든그로브(1,746명), 사이프리스(1,588명), 라하브라(1,117명), 브레아(999명) 등이 뒤를 따랐다.

OC선거관리국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출생국별 유권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한인 1세 유권자 수는 연평균 1,062명씩 늘었다.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난 1년여 사이 한인 1세 유권자 증가폭이 예년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난해 6월 7,378명에 달했던 비활동유권자 수가 올해 들어 6,259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사 등의 이유 때문에 주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거나 지난 4년간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비활동유권자로 분류된다.

한인들의 유권자 수 증가는 시민권 취득자 수 증가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연방국토안보부(DHS)이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신규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인은 총 1만 5,922명으로 직전해 1만 4,470명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 또 정치적 신장을 위한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계몽과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유권자 수 증가와 비활동유권자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전문가들은 한인들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때 한인의 이익과 한인 사회의 발전이 가속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캘코 생명보험



**LIFE INSURANCE**



**Samuel Lee**  
CA Lic# OJ08982  
Cell: 562.756.6807  
samuel@calkor.com

**생명보험, 은퇴연금, 메디케어**

상기 설명된 특약에 관한 내용은 보험사별 지급 규정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받는 보상금의 계산은 각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 받을 수 있고 지급에 따른 세금 및 법률에 관한 조연은 각 분야의 전문인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 보험사 별 지급 방식과 상세한 내용은 에이전트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년 Term〉							〈30년 Term〉						
나이	30만		50만		1백만		나이	30만		50만		1백만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30세	\$15	17	19	23	30	36	30세	\$21	24	29	35	49	60
40세	21	24	29	33	49	57	40세	31	37	45	56	81	101
50세	41	54	64	83	118	152	50세	71	95	104	135	198	262

\*Best Rate 월 보험료 / 단위 \$

**암,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 등의 질병에 걸려 그로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생명보험입니다**

**해당되는 질병으로 부터 본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

- Critical Illness (중대질병) 특약**  
심장마비, 뇌졸중, 침윤성암, 말기 신부전증, 주요 장기이식, 전신마비, 실명, 루게릭병 (근육위축증)
- Chronic Illness (중증 만성질환) 특약**  
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6ADL\* 중 2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을시, 혹은 중증 인지능력 장애가 왔을 시 (예: 치매, 알츠하이머) 6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동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 용변보기, 배변조절
- Terminal Illness (말기질환)**  
의사로부터 2년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을 시

2015년 당시 54세 남성  
40만불 생명보험 가입  
다음 해 10월에  
갑상선암 판정 후 수술받음  
특약을 통해 Claim한 후  
\$231,816을 보상받음  
2019 현재 현재,  
건강한 삶 유지

OC 714.376.1871 7342 Orangethorpe Ave. #C103, Buena Park, CA 90621  
LA 213.387.5000 3200 Wilshire Blvd. #1700, South Tower, LA, CA90010

 **생명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종업원상해보험**

 **사업체보험**

 **주택보험**

 **시니어 메디케어**